101101 제15회 명원차 문화대상 시상식과 차 문화제

축　　사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에서 매년 한국 차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하는 명원차문화상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늘 한국의 다성으로 불리는 초의스님을 생각할 때 함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다도의 선구자이신 명원 김미희 보살입니다.

옛날 제가 제방선방을 다니며 공부하던 시절 또한 큰 스님들을 만나 법담을 듣던 시절 자주 듣던 이름이 바로 명원 김미희 보살입니다.
큰스님들께서는 한국불교가 명원 김미희 보살 같은 분이 여러분이 있으면 많은 발전 할 텐 데라는 말씀을 자주하셨습니다.
한국 차 문화의 복원뿐만 아니라 명원 김미희 보살은 불교와 바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의 다성으로 불리는 초의선사께서 당시 위기에 처해있던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의 신지식인들과 차를 통해 교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쇠락해가던 조선불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빛난 법향이 오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원 김미희 보살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예절도 찾기 어려웠던 어려운 시절.
우리국민들의 심신을 정화시키고 우리국민들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전통차문화를 복원하고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명원 김미희 보살의 차향으로 인해 오늘날 한국의 차 문화는 찬란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다성 초의스님과 한국다도의 선구자인 명원 김미희 보살을 늘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더욱 기쁜 것은 2대에 걸쳐 한국불교와 한국 차 문화 발전에 계속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김의정 회장님은 명원 김미희 보살님에 뒤를 이어 한국다도의 종가를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중흥의 요람인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한국불교의 청복이요. 한국차문화의 청복인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다도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보살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차향의 청복, 예절의 청복, 전통문화의 청복을 함께 느끼고 추모해봅시다.
아울러 오늘 그런 명원 김미희 보살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인 명원차문화상 수상자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이 명원 김미희 보살의 삶과 정신을 훌륭하게 선양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다도의 종가가 되기를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